

국가호감도 및 미중 갈등 관련 국민 의식 분석

국가·국제기구 호감도와 글로벌 영향력 평가

- 국민 호감도 높은 국가·국제기구, UN - 캐나다 - 독일 순
- 남자 20대, 남녀 60대 이상 호감도 높아
- 이념성향별 호감도, 보수층과 진보층 달라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 호감도 상위 3개국, 하위 3개국 현황
- 향후 10년 국가·국제기구별 글로벌 영향력 평가
- 국민의 미국과 중국 세계 영향력 평가, 글로벌 흐름과 달라

세계 최고 경제 강국 관련 국민 의식

-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 미국 75%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미국 46% vs 중국 25%
- 향후 25년 안에 세계대전 '발생할 것' 40% vs '발생하지 않을 것' 60%

미중 갈등 전망 및 대한민국의 태도

- 미중 무역전쟁 책임소재, '둘 다' 63%
- 홍콩보안법 계기 미중 갈등 고조 책임 소재, '중국책임' 57%
- 미중 갈등,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높은 위협'
- 미중 각각의 세계 경제체제, '미국주도 경제'에 참여해야 51%
-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 강화해야 할 국가, 미국 56%

• • •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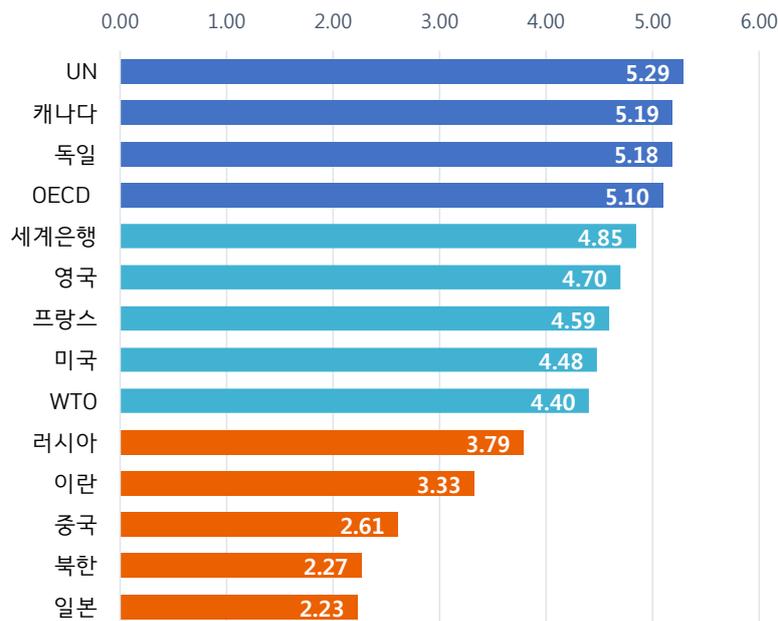
㉨ 국가·국제기구 호감도와 글로벌 영향력 평가

※ 국민 호감도 높은 국가·국제기구, UN - 캐나다 - 독일 순

- ▶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국가·국제기구 중 호감도 1위를 차지한 UN도 5.29점에 그치고 있고, 5점을 넘은 국가·국제기구는 4개에 불과함
 -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호감도가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임
- ▶ UN 다음으로 높은 호감도를 기록한 국가·국제기구는 캐나다(5.19), 독일(5.18), OECD(5.10) 순임
- ▶ 가장 호감도가 낮은 국가·국제기구는 일본으로 2.23점에 불과하고, 그 다음으로 호감도가 낮은 국가·국제기구는 북한(2.27)으로 조사됨
 - 북한보다 일본이 더 낮은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불만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임

국가·국제기구 호감도 : 국민전체 (1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점)



- ▶ 한편, 우리나라 주변국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러시아(3.79), 중국(2.61), 북한(2.27), 일본(2.23)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해 '이웃 국가'들 평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우리나라와 동맹국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도 4.48점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와 연관된 모든 국가들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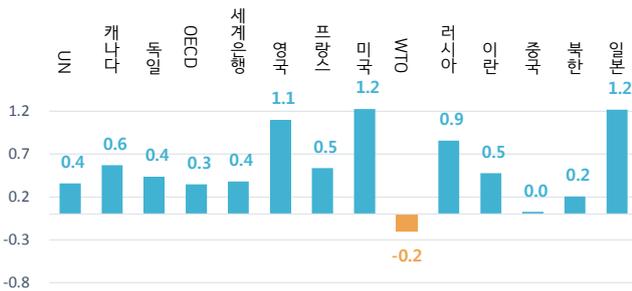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라기보다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음
: 세부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7호 '차별과 배제 관련 국민 의식 분석' 참조
- ☑ 이러한 폐쇄적·차별적 인식은 한국 사회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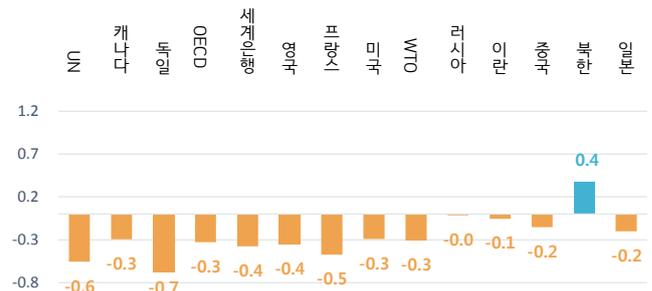
※ 남자 20대, 남녀 60대 이상 호감도 높아

- ▶ 성/연령별로 호감도 편차(국민전체 호감도와의 편차)를 살펴보면 남자 20대, 남녀 60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음
- ▶ 이에 비해 여자 2040세대, 남자 3040세대는 호감도가 낮아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에 비판적 태도를 갖고있는 것으로 보임
- ▶ 남녀 50대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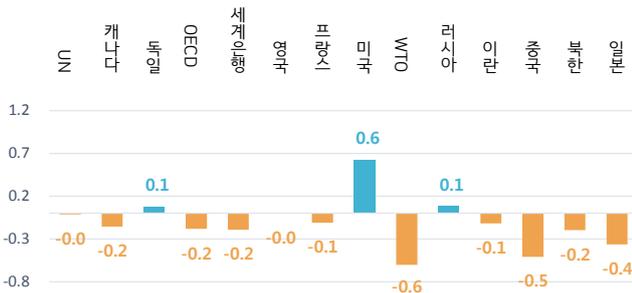
남자18~2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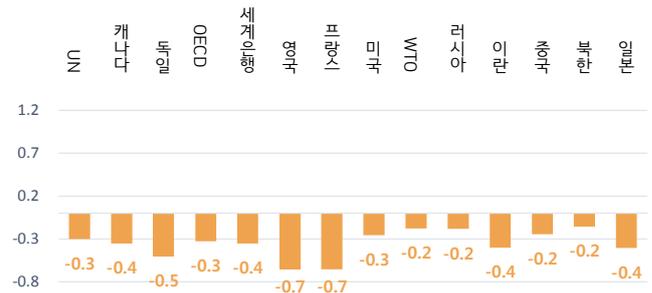
여자18~2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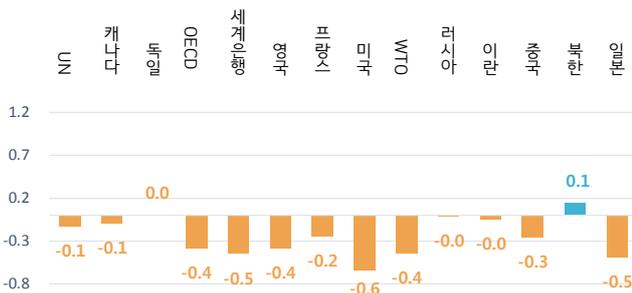
남자3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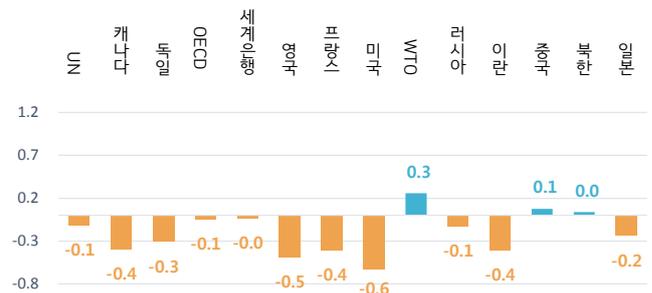
여자3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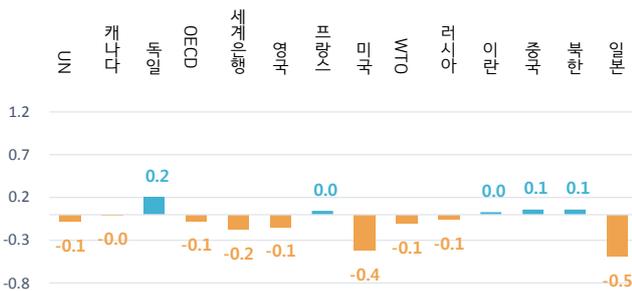
남자4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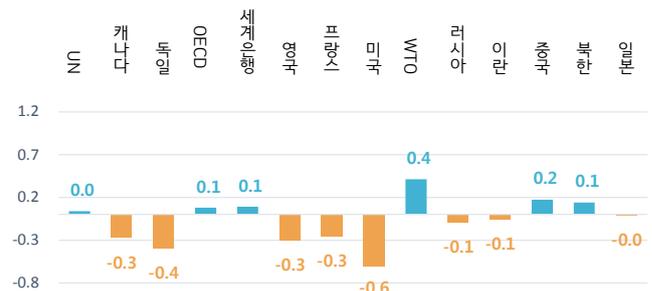
여자4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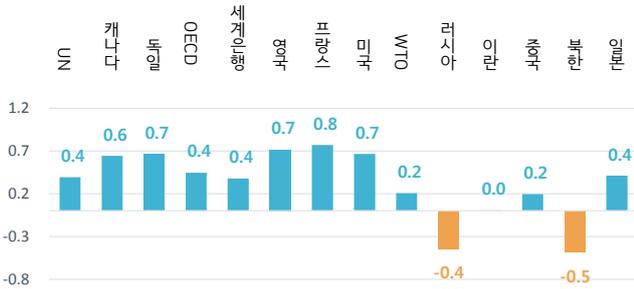
남자5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여자5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남자60대이상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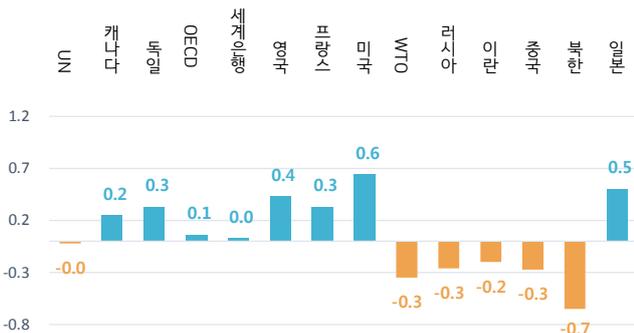
여자60대이상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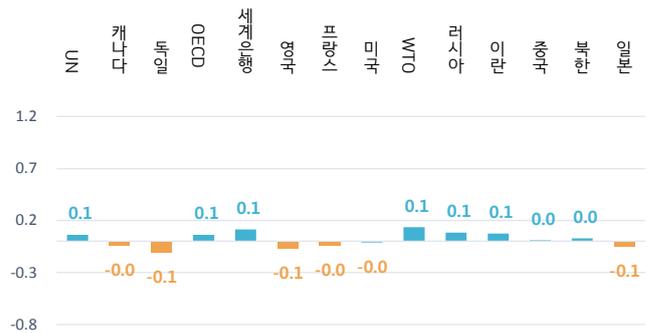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호감도, 보수층과 진보층 달라

-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경우 국민전체 대비 다소 호감도가 높는데 비해, 진보층은 호감도가 낮음
 - 그만큼 진보층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임
 - 앞서 성/연령별 분석에서 여자 2040세대, 남자 3040세대 호감도가 낮았는데, 이들 연령층이 주로 진보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중도층은 중간수준의 편차를 나타냄
- ▶ 보수층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낮는데, 진보층은 이와 거의 정반대의 호감도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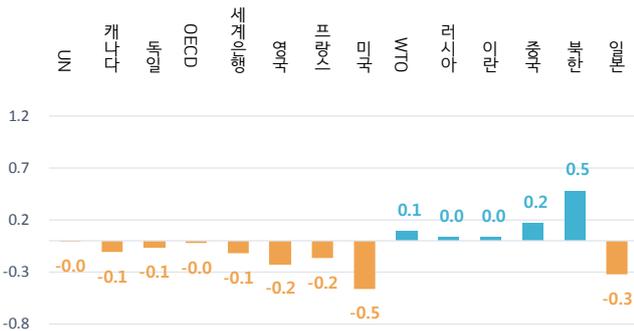
보수층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중도층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진보층 국민전체 대비 편차 (단위:점)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 호감도 상위 3개국, 하위 3개국 현황

- ▶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성/연령별 호감도 상위 3개국과 하위 3개국 현황을 살펴보면 약간의 순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같은 국가가 포진하고 있음
- ▶ 먼저 호감도 상위 3개국에는 남자 20대를 제외한 모든 성/연령대에서 캐나다, 독일이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에 영국, 프랑스, 미국이 속함
 - 미국은 남자 20대, 남자 30대, 여자 30대에서 상위 3개국에 포함됨
- ▶ 호감도 하위 3개국은 모든 성/연령대에서 중국, 북한, 일본이 순위만 약간씩 바뀔 뿐 동일하게 하위 3개국에 속하고 있음

남자 연령별 국가 호감도 현황 (호감도 높은 순으로 명기)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

	호감도 상위 3개국			호감도 하위 3개국		
남자 18~20대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남자 30대	독일	미국	캐나다	중국	북한	일본
남자 40대	독일	캐나다	프랑스	북한	중국	일본
남자 50대	독일	캐나다	프랑스	중국	북한	일본
남자 60대이상	독일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북한

여자 연령별 국가 호감도 현황 (호감도 높은 순으로 명기)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

	호감도 상위 3개국			호감도 하위 3개국		
여자 18~20대	캐나다	독일	영국	북한	중국	일본
여자 30대	캐나다	독일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여자 40대	독일	캐나다	영국	중국	북한	일본
여자 50대	캐나다	독일	영국	중국	북한	일본
여자 60대이상	독일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북한

-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호감도 상위 3개국과 하위 3개국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국가가 속해 있음
 - 호감도 상위 3개국은 캐나다, 독일, 영국이 공통적이고 호감도 하위 3개국은 중국, 북한, 일본이 똑같음
 -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경우 보수층에서도 호감도 상위 3개국에 속하지 못한 것이 특징적임

주관적 이념성향별 국가 호감도 현황 (호감도 높은 순으로 명기)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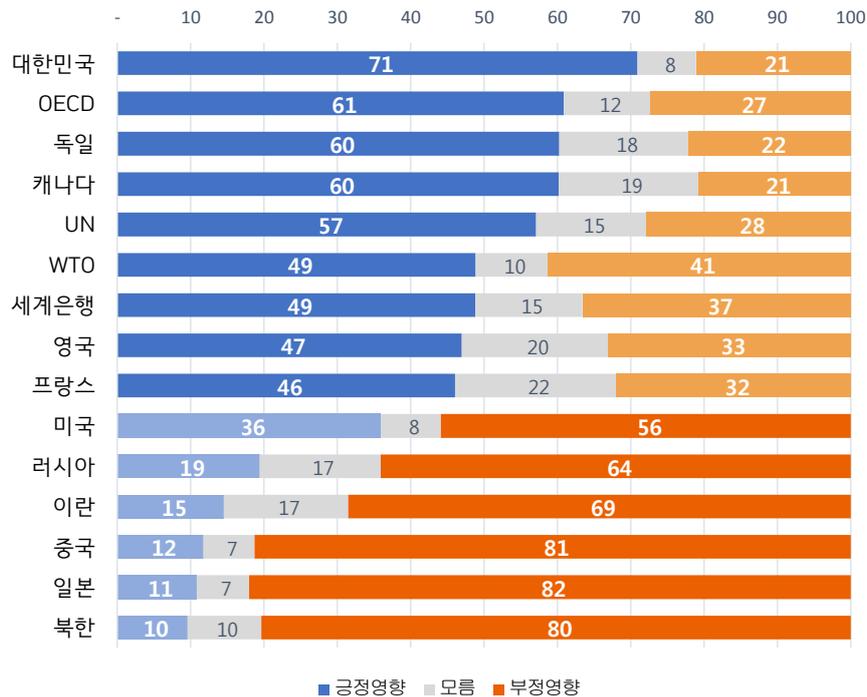
	호감도 상위 3개국			호감도 하위 3개국		
보수층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북한
중도층	캐나다	독일	영국	중국	북한	일본
진보층	독일	캐나다	영국	중국	북한	일본

※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국가·국제기구 글로벌 영향 평가**

- ▶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해 향후 10년을 생각하면서 세계에 미칠 영향을 질문한 결과 대한민국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71%로 높은 가운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은 21%에 그침
- ▶ 대한민국 다음으로 ‘긍정영향’ 평가가 높은 국가·국제기구는 OECD(61%), 독일(60%), 캐나다(60%), UN(57%), WTO(49%), 세계은행(49%), 영국(47%), 프랑스(46%) 순으로 나타남
 - 앞서 국가·국제기구 호감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OECD, 독일, 캐나다, UN 등이 상위에 속함
- ▶ 이에 비해 미국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56%로 ‘긍정영향’(36%)보다 높게 나타남
 - 미국보다 ‘긍정영향’ 평가를 낮게 받은 국가는 러시아(19%), 이란(15%), 중국(12%), 일본(11%), 북한(10%) 순임
 - 국가·국제기구 호감도에서 하위권에 처했던 중국, 일본, 북한이 이번 항목에서도 최하위권을 형성함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평가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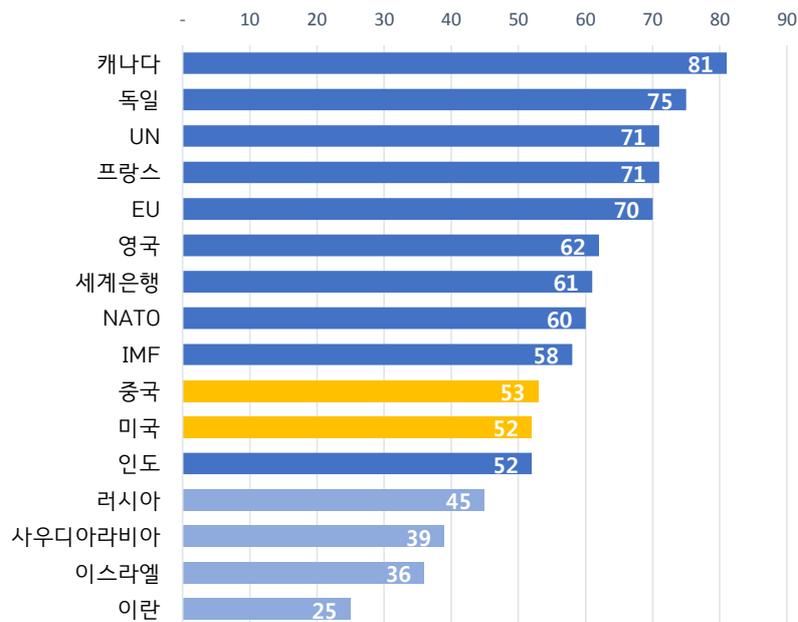
- ☑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G2로 불리며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 : 중국은 물론 한국의 동맹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향후 세계질서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임
 - : OECD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중심의 세계질서보다 다자국가들의 협력적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민의 미국과 중국 세계 영향력 평가, 글로벌 흐름과 달라

- ▶ 입소스 글로벌에서 2019년 9월, 전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캐나다가 향후 10년을 생각할 때 세계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 ▶ 이번 케이스탯 조사와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 국민 역시 캐나다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0%로 상위권에 속함
 - 독일, UN 등의 긍정적 영향력 평가 역시 글로벌 흐름과 대한민국 국민 조사결과가 유사함
- ▶ 그러나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세계 영향력 평가는 글로벌 여론과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다른 모습을 보임
 - 입소스 글로벌 조사에서 미국의 '긍정영향'은 52%이고, 중국은 이보다 근소하게 높은 53%임
 - 앞서 케이스탯 조사에서는 국민 중 12%만이 향후 중국이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글로벌 여론은 이보다 훨씬 높은 53%를 기록하고 있음
 - 미국에 대해서도 국민 중 36%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으나, 글로벌 조사에서는 52%로 나타남

향후 10년 세계에 미칠 영향 평가 : 긍정 영향

(자료:입소스글로벌,2019.09,단위:%)



Kstat Point

- ☑ 입소스 글로벌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생각은 비교적 긍정적임
 - : 이는 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 세계 138개국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무역·금융·에너지자원 확보 및 유통이라는 대규모 사업임
- ☑ 미중 무역갈등을 계기로 서구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 의식처럼 12%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 우리 국민은 중국에 대한 낮은 호감도로 인해 향후 세계에 미칠 영향력 평가에서도 즉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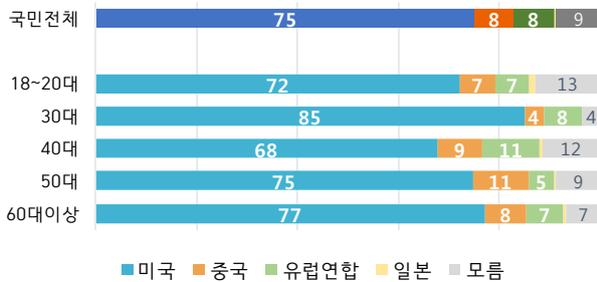
세계 최고 경제 강국 관련 국민 의식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 미국 75%

-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중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의 절대다수인 75%가 미국이라고 응답함
- 미국 다음으로는 커다란 격차로 중국(8.0%), 유럽연합(7.6%), 일본(0.5%) 순으로 조사됨
- ▶ 미국이라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 걸쳐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의 확고한 생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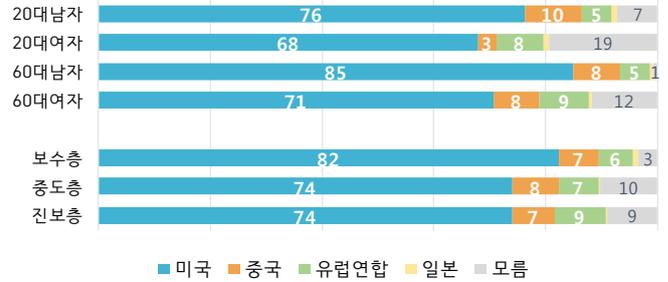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 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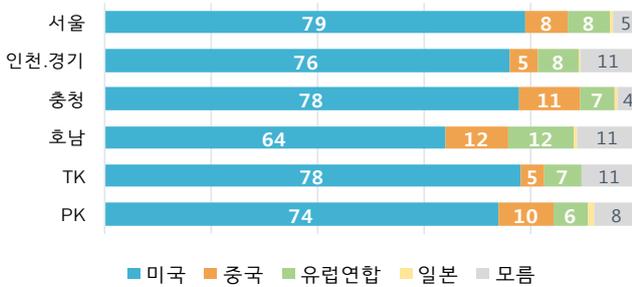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 20,60대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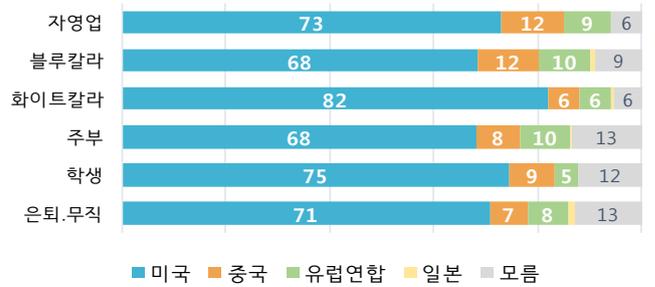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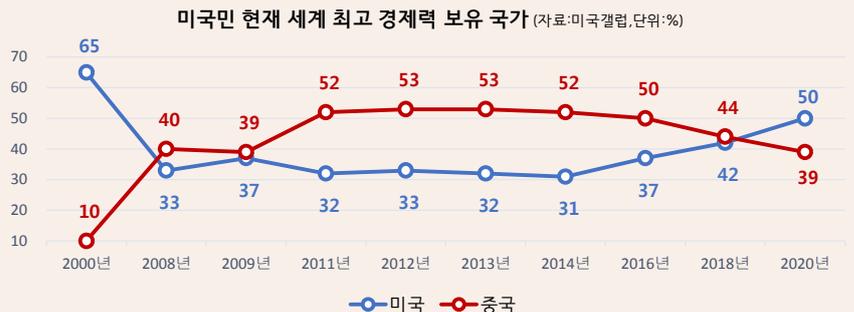
Kstat Point

☑ 미국 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인은 2008년을 기점으로 ‘현재 세계 최고 경제력 보유 국가’를 중국이라고 생각했었고, 이러한 흐름은 2016년까지 유지됨

: 2000년에는 미국 65%, 중국 10%로 미국이라는 압도적이었음

☑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미중 무역전쟁을 벌인 직후인 2018년을 기점으로 격차가 좁혀졌고, 2020년 현재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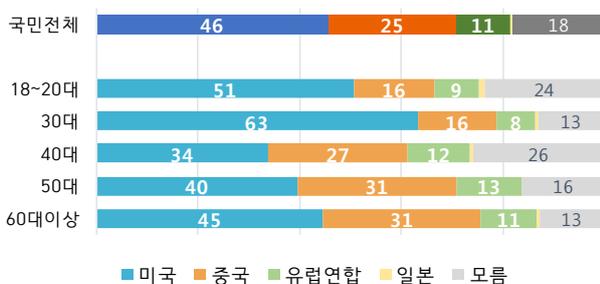
: 아직도 미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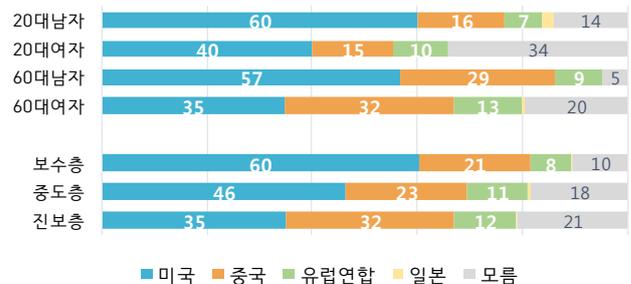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미국 46% vs 중국 25%

- ▶ “앞으로 20년을 전망할 때, 다음 중 어느 국가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국민 중 46%가 미국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중국이라는 응답이 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중국 뒤로는 유럽연합 11%, 일본 0.5% 등이고, 모름은 18%로 조사됨
- ▶ 현재 세계 최고 경제 강국은 미국이라는 응답이 75%로 압도적이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46%로 줄어들었고, 중국의 부상을 전망하는 국민이 많음
-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 경제 강국 8%에서,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25%로 상승함
- ▶ 계층별로 살펴보면 주부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 걸쳐 미국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주부 계층은 미국 30% vs 중국 33%로 중국이 세계 최고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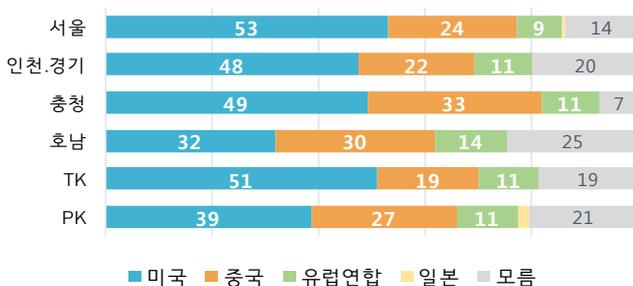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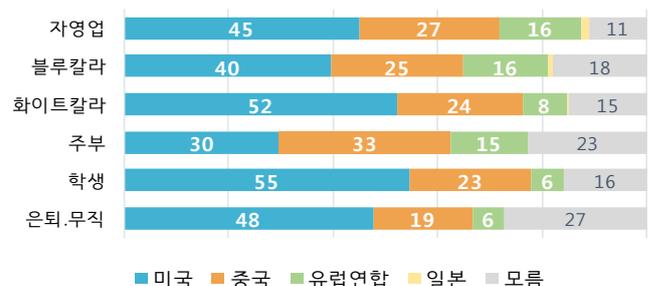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20,60대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에 대한 미국민의 의식은 미국과 중국이 엇갈렸으나 2020년 현재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큰 격차로 우세해짐
: 이러한 흐름 역시 미중 무역전쟁 이후 강화된 것임

☑ 2020년 현재 미국 53% vs 중국 30%(자료, 미국갤럽 조사결과) 이번 케이스탯 조사결과와 유사함
: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흐름은 미국민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 비슷한 것으로 보임

미국민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 전망 (자료:미국갤럽,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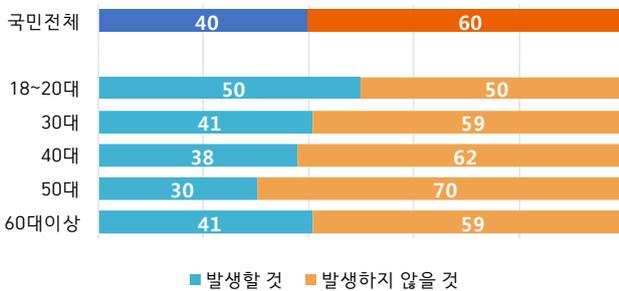
연도	미국 (%)	중국 (%)
2000년	55	15
2008년	31	44
2009년	45	34
2011년	35	47
2012년	38	46
2016년	44	34
2018년	44	41
2020년	53	30

※ 향후 25년 안에 세계대전 ‘발생할 것’ 40% vs ‘발생하지 않을 것’ 60%

- ▶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은 세계대전 발생에 대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인 40%에 달해, 국민 역시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선생님께서서는 앞으로 25년 안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강대국이 연관된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50대 △진보층 △호남 △화이트칼라 계층임
- ▶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발생할 것’ 50% vs ‘발생하지 않을 것’ 50%로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자는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우세하고, 20대 여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우세함
- ▶ 또한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보수층 △TK △블루칼라 계층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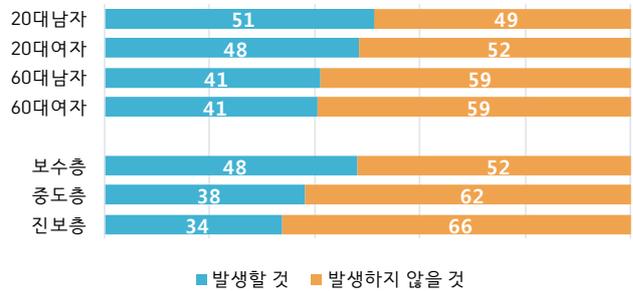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생 전망: 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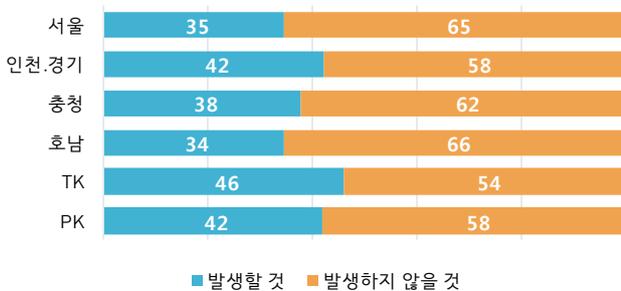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생 전망: 20,60대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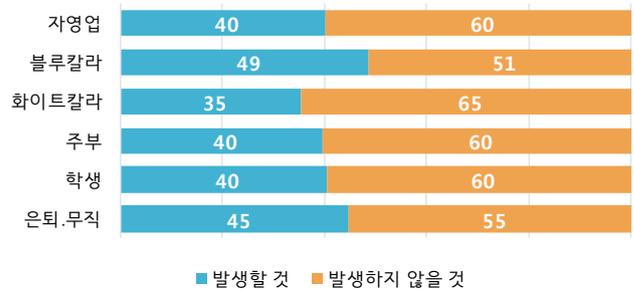
향후 세계대전 발생 전망: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향후 세계대전 발생 전망: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 향후 25년 내 세계대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여론 흐름은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63%로 높음 :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은 미국 69%, 캐나다 67%, 프랑스 63%, 중국 59% 등 주요 나라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입소스 글로벌, 2019년 9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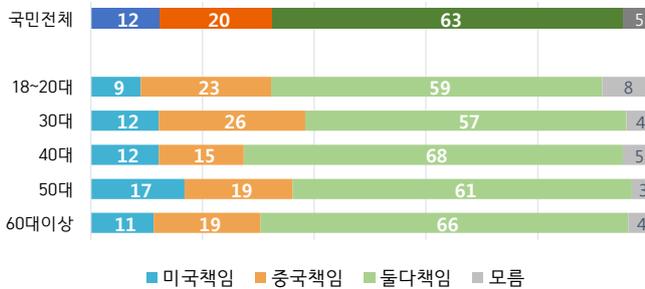
▣ 미중 갈등 전망 및 대한민국의 태도

※ 미중 무역전쟁 책임소재, '둘 다' 63%

- ▶ 작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책임이 어느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 ‘둘 다 책임’이라는 여론이 63%로 높은 가운데 ‘중국 책임’이 20%로 ‘미국 책임’ 12%보다 높아 다소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둘 다 책임’이라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40대 △60대 이상 여자 △충청 △주부 계층 등임
- ▶ ‘중국 책임’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30대 △20대 남자 △보수층 △TK △자영업 계층 등임
- ▶ 이에 비해 ‘미국 책임’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 △60대 이상 남자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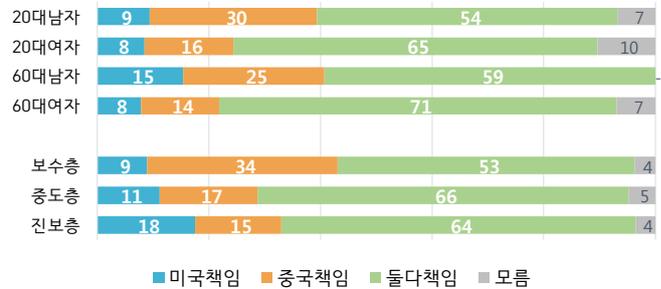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 책임소재 : 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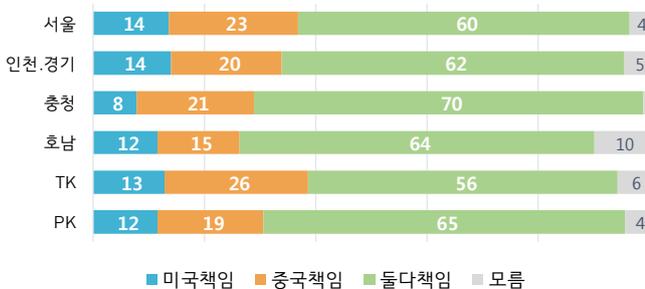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 책임소재 : 20,60대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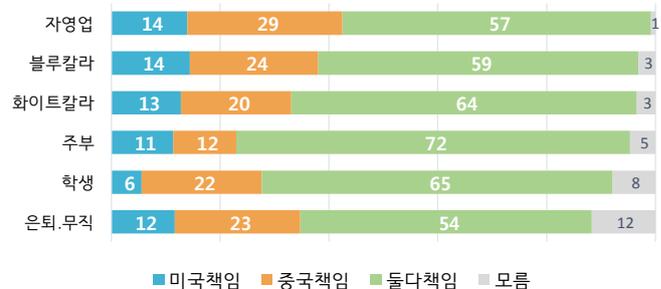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 책임소재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미중 무역전쟁 책임소재 :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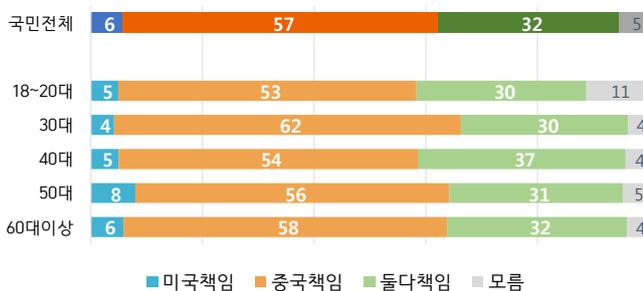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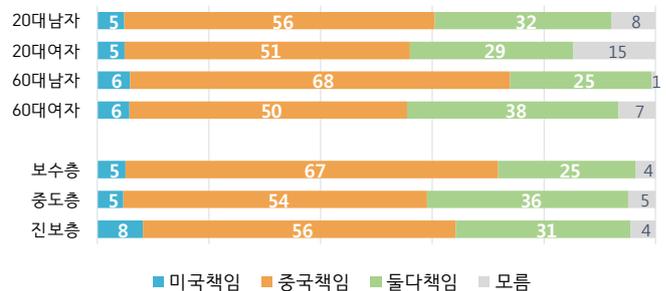
※ **홍콩보안법 계기 미중 갈등 고조 책임 소재, '중국 책임' 57%**

- ▶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재차 미중 갈등이 고조된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계기로 재차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어느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미국 책임'은 6%에 그치고 '중국 책임'이 57%로 높게 나타남
 - '둘다 책임'이라는 응답은 32%로 조사됨
- ▶ '중국 책임'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30대 △60대 이상 남자 △보수층 △TK △화이트칼라와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 ▶ '둘다 책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 △60대 이상 여자 △중도층 △호남 △주부 계층 등임
- ▶ 화이트칼라 계층은 대부분 진보층의 여론 흐름과 유사한데, 미중 갈등 관련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중국 책임론에 동의하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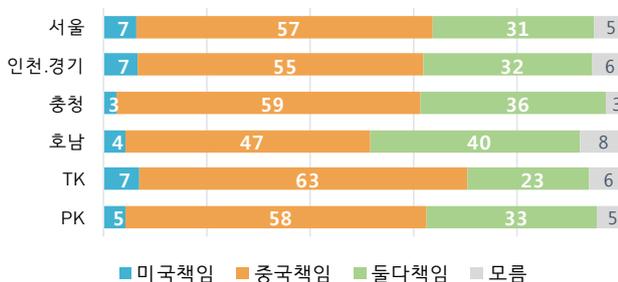
홍콩보안법 계기 미중갈등 책임소재: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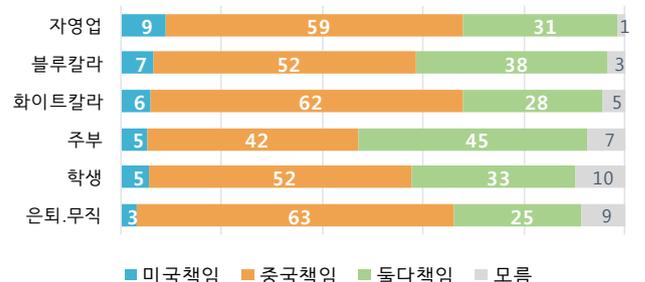
홍콩보안법 계기 미중갈등 책임소재:20,60대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홍콩보안법 계기 미중갈등 책임소재: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홍콩보안법 계기 미중갈등 책임소재: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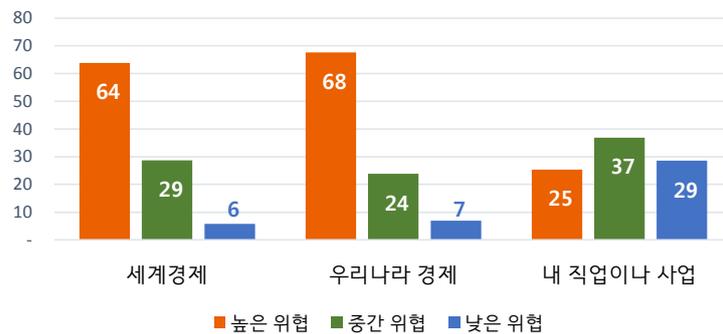
- ☑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입장 천명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가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증 갈등,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높은 위협'

- ▶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미증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 미증 갈등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한 결과 세계경제에 '높은 위협'이고(64%), 우리나라 경제에도 '높은 위협'(68%)이라고 응답함
- 내 직업이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높은 위협' 25%, '중간 위협' 37%, '낮은 위협' 29%로 응답함

미증갈등 부문별 위협 정도 : 국민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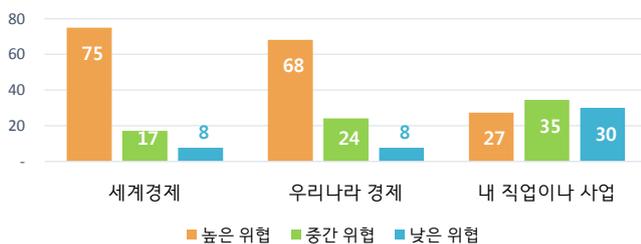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종사자 모두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높은 위협'이 될 것으로 응답한 가운데 내 직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낙관적 태도를 피력함
- ▶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에 비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의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높은 위협'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내 직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이 '높은 위협'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는 경제상황이 안좋아질 경우 당장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저소득 계층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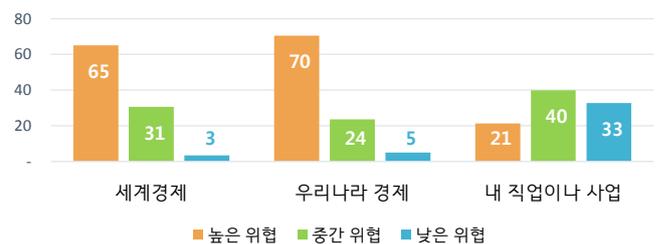
미증갈등 부문별 위협 정도 : 자영업자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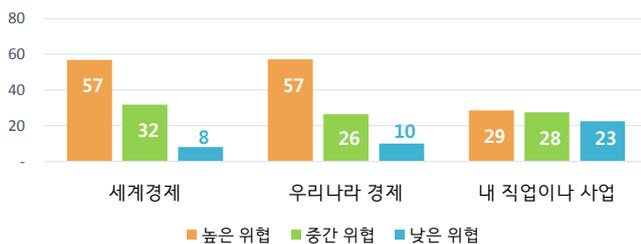
미증갈등 부문별 위협 정도 : 화이트칼라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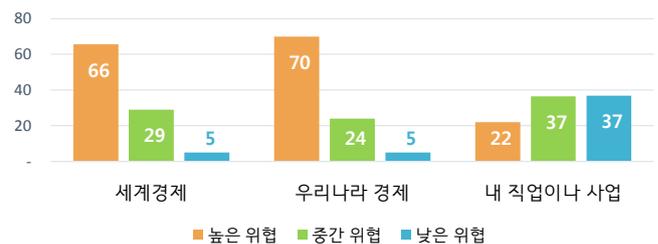
미증갈등 부문별 위협 정도 : 200만원 미만 소득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미증갈등 부문별 위협 정도 : 600만원 이상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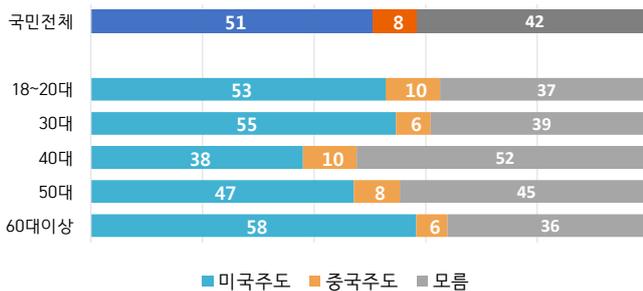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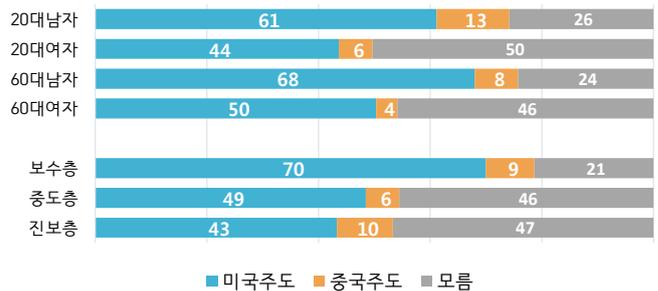
※ 미중 각각의 세계 경제체제에 '미국주도 경제'에 참여해야 51%

- ▶ 세계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각각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재편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미국주도 경제질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나라 모두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주도 경제질서 참여'가 51%로 높게 나타났고, '중국주도 경제질서 참여'는 8%에 그침
 - '모르겠다'는 응답이 42%로 높게 나타나 상당수 국민은 아직 태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모든 계층에 걸쳐 '미국주도 경제질서 참여'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60대 이상 남자 △보수층 △학생 계층임
- ▶ '중국주도 경제질서 참여'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낮은 수치를 보임
- ▶ '모름'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40대 △20대 여자 △진보층 △호남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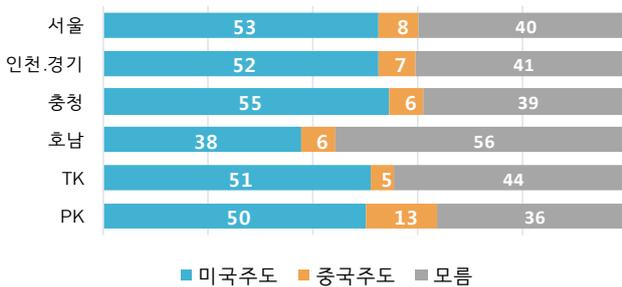
미중 경제질서 중 참여할 곳 : 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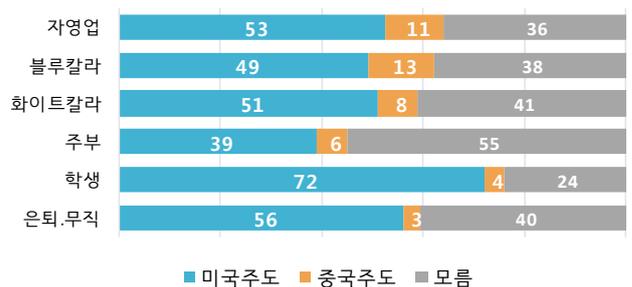
미중 경제질서 중 참여할 곳 : 20,60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미중 경제질서 중 참여할 곳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미중 경제질서 중 참여할 곳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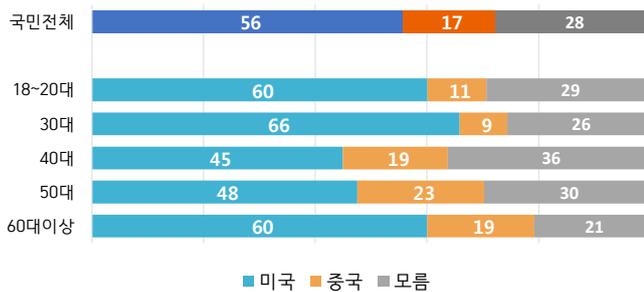
- ☑ 미국주도 세계 경제질서에 참여할 것인가, 중국주도 세계 경제질서에 참여할 것인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떨어질 중대한 문제임
 - : 미국은 탈중국 흐름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없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목표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구 국가들의 동조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음
- ☑ 현재까지는 미국 주도 세계 경제질서 참여가 다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모름'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여론 변동성은 큰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 강화해야 할 국가, 미국 56%**

- ▶ 우리 국민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선택함
- ▶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응답은 미국 56%, 중국 17%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음
 - '모름' 응답은 28%로 앞선 질문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 ▶ 미국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30대 △20대 남자, 60대 남자 △보수층 △총청 △학생 계층임
- ▶ 중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 △60대 남자 △진보층 △호남,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등임
- ▶ 보수층은 미국 72% vs 중국 12%로 압도적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진보층은 미국 44% vs 중국 25%로 중국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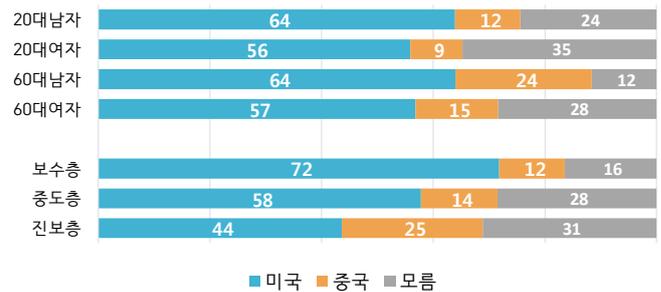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국민전체,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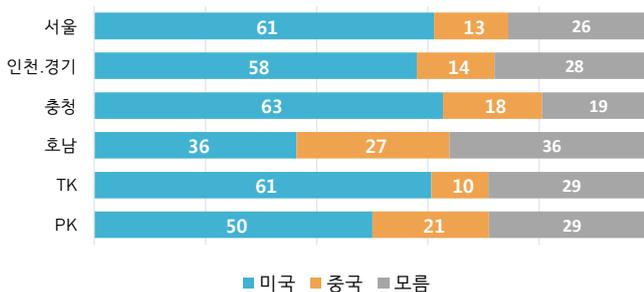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20,60대남녀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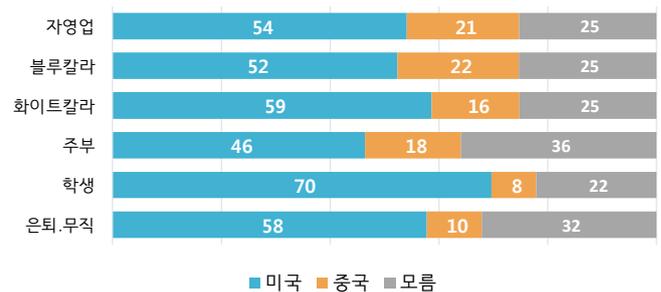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중장기적 경제협력 강화 국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 ☑ 앞서 국가호감도에서 미국은 4.48점이고 중국은 2.61점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
- ☑ 그러나 미국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5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볼 때 절대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임
- ☑ 향후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서로가 우리나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때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모두 미국편에 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남
- ☑ 하지만 미국에 대한 절대적으로 낮은 호감도 점수가 여론 변동성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조 사 개 요

조 사 기 간

2020년 6월 4일(목) ~ 6월 7일(일)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 사 기 관

케이스탯리서치

표 본 추 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 효 표 본

총 1,072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99\%p$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케이스탯은 조사·통계·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월 2회 “**Kstat Report**”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Kstat Report**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Kstat Report** 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 **Kstat Report**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Kstat Report**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 **Kstat Report** 는 매월 2,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Kstat Report 09호는 “2020년 07월 09일”에 발행됩니다.